

유치원 다니고 호텔서 즐긴다...반려동물 서비스 '고급화'

펫코노미 시대 <3>맞춤형 돌봄공간

반려동물 교육·사회화 등 필요성 대두...돌봄시설 확대 지역 내 전문 인력 양성 필수...“질적 성장 동반 돼야”

#워킹맘 유모(30대)씨는 1박 이상의 여행을 떠날 때면 애견 호텔을 이용한다. 실외 배변만 하고 정해진 사료 외에 입에도 대지 않는 반려견 '호두'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호텔에서 호두의 모습을 여러 번 사진과 영상으로 공유해준다. 유씨는 비용이 들더라도 호두가 잘 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

#반려견 '보리'를 주 3회 애견 유치원에 보내는 직장인 한모(20대)씨는 요즘 들어 보리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뿌듯함을 느낀다. 유치원에 다닌 이후로는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리고, 한결 적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돌봄 서비스만 기대했던 한씨는 보리가 성격도 밝아지고 더 사교적이 된 것 같

아 만족스럽다.

펫 호텔과 펫 유치원 등의 돌봄시설이 반려동물을 혼자 둘 수 없는 보호자들의 선택지로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반려동물도 놀이, 교육, 숙박까지 전문적인 관리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최근 이러한 돌봄시설이 확산되는 것은 반려동물에게도 교육과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변화와 함께 직장인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직장이나 여행 등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애견 유치원과 호텔 등을 포함하는 동물 위탁관리업은 2일 기준 전국 5천742건, 광주 183건, 전남 164건으로 집계됐다.

펫 호텔은 보호자가 여행이나 출장으로 집을 비울 때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숙박형 시설로 숙박 기간 식사와 산책, 놀이 등 전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펫 유치는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부재중에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반려동물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돌봄시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호텔, 유치원, 미용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시설로 운영되기도 하며, 보호자들은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반려동물 돌봄업체들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많은 업

체가 실시간 영상 서비스를 제공, 보호자들이 자신의 반려동물이 시설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맞춤형 식사 제공이나 산책 코스를 반려동물의 특성에 맞춰 세심하게 조정하는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다.

개별적인 케어를 원하는 보호자는 전문 펫티터를 고용하거나 중고거래 플랫폼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기도 한다.

특히,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고급 펫 시터 서비스를 원하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펫티터 고용 경험이 있는 정모(30대·여)씨는 “애견 유치원에서는 나이가 많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며 받아주지 않아 펫티터를 선택하게 됐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은 누가 올지 몰라 믿음이 가지 않아 검증된 중개업체를 이용했는데, 믿을 수 있는 펫티터 분이 와서서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돌봄시설은 단순한 양육 확보보다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 시설

관리와 개선 등 질적인 측면의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교육하고 돌보는 트렌드에 따라 이들을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동시에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정육 더펫하우스협동조합 대표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돌봄시설도 그중 한 분야”라며 “하지만 유치원에 보냈는데 기존에 없던 문제 행동이 발생하거나 호텔에 맡겼는데 학대를 당하는 등 부작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장의 성장과 함께 전문 인력 확대가 필수적이지만 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대학들에서 관련 학과가 신설돼 전문 인재가 양성될 가능성은 있지만 타 지역으로 인력이 이탈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승술기자

K-콘텐츠 수출 마케터 양성

콘진원, 3기 수료식...트렌드 기반 실무 교육부터 현장실습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난달 29일 서울 흥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2024 글로벌 K-콘텐츠 수출 마케터 양성 교육’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기를 맞은 글로벌 K-콘텐츠 수출 마케터 양성 교육은 글로벌 콘텐츠산업에 대한 이해와 시장 전문성을 바탕으로 콘텐츠 수출·마케팅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마케터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

올해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정규·특별 교육과정을 신규 교육생 57명과 현업 교육생 30명 등 총 87명이 수료했다.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케이타운포유 등 국내 수출 전문 기관 및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전문가들과 콘텐츠 수출 및 마케팅 기획부터 전략 수립, 유통, 계약에 이르는 실무 전반에 대해 12주간 체계적으로 실습했다.

또한, 글로벌 법무법인 계약담당자의 지도 아래 비즈니스 영어 기반 계약서 작성법 등 외국어 교육도 심화운영했다.

특별 교육과정은 ▲국내 콘텐츠 B2B 견본시 현장실습 ▲해외연수·인턴십 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으며 포트폴리오 제작 및 인턴십 매칭 프로그램 등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28명이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콘진원은 올해까지 총 24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KBS미디어, 더빙크공컴퍼니, 스튜디오드래곤, SM엔터테인먼트, SLL 등 유수의 콘텐츠 기업에 취업해 활약하고 있다.

유현석 콘진원 원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K-콘텐츠 수출을 이룰 창의적이고 실무 능력을 갖춘 마케터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태호기자



2025 을사년 연하우표 발행

2일 서울중앙우체국 우표박물관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2025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연하우표와 연하카드·엽서 14종을 발행했다. /연합뉴스

에너지 절약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겨울철 에너지절약 실천요령

- ❶ 가습기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20℃ 유지하기
- ❷ 문 닫기 뽁뽁이, 커튼으로 틈새 열 손실 줄이기
- ❸ 세탁 내복, 무릎담요 등 온(溫)번시 실천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글로벌모터스, 소외계층 김장 나눔

임직원·가족 직접 담근 400포기 장애인시설 등 전달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김장김치를 소외계층에 전달하며 온정을 나눴다. <사진>



GGM은 2일 김장김치 400여 포기를 광산구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인 소화성가정, 백선바오로의집을 비롯해 삼도동행정복지센터, 본량동행정복지센터, 전남 나주시 이화영아원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한 김장김치는 GGM 상생봉사단 소속 임직원 및 가족 60여명이 지난달 30일 남구 임암동에 위치한 광주김치타운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김장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직접 담근 것이다.

GGM 상생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중 경영지원본부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장 나눔 봉

사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임직원들이 정성껏 버무린 김장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봉사단은 지난 6월에는 나주 이화영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상생봉사단은 영아원 생활관 14개실, 부대시설 6개실, 사무실 2개실 등을 대상으로 방충망 탈착 후 물청소를 했다. 이어 짜장면, 탕수육, 볶음밥 등 현장에서 직접 중식요리를 만들어 원생들에게 제공했으며, 성금과 생활필수품 등을 전달했다. /임재만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갖는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여수 앞바다 싱싱한 해산물이 풍부한 교동시장

◎ 장이 서는 날 ◎ 매일

- 이용시간 : 05시 ~ 14시
- 휴무일 : 둘째, 넷째 일요일



여수 교동시장 풍물거리



여수 교동시장 입구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여수시 YEOSU SI

문의 : 062)650-2099